

6. 줄다리기의 의미

줄다리가 설 명절과 출렁 쳇 축제 기간 동안 진행되는 이유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와 관련된 제의적 의미를 파악해야 한다. 줄다리에 담긴 제의적 의미 세 가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 묵은해에서 새해로의 이동
- 완벽한 시간과 사회 질서의 회복
- 기우제의 의미

6.1. 묵은해에서 새해로의 경과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시간은 끊임없이 지속되는 주기라는 개념으로 설명된다. 그러나 하나의 주기가 끝나고 새로운 주기가 시작되기 전에는 항상 과도기가 존재한다. 이 과도기가 바로 사흘간의 설 명절이다. 뿐만 아니라 이 과도기는 사회적 혼란과 무질서의 시기를 상징한다. 즉, 평상시 허용되지 않는 행위들이 이 시기에는 가능하다는 뜻이다. 예를 들어, 남성은 관습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여성과 접촉이 허용되지 않지만, 전통놀이라는 구실로 이러한 행위가 허용된다. 이와 같은 무질서와 사회적 혼란을 바로 잡기 위한 방편으로 공동체는 의식을 치르고 모래산 쌓기(그림 36)나 줄다리기 놀이와 같은 제의적 의미가 담긴 놀이를 행한다.

줄다리는 묵은 시간 주기를 끊고 새로운 열두 달로 이루어진 새 시간 주기로의 진입을 상징하는 전통놀이이다. 이러한 제의적 의미는 줄다리가 끝나고 물리적으로 밧줄을 끊는 의식 행위를 통해 표현된다.

출렁 쳇 축제의 마지막 날 밧줄을 끊는 의식에도 비슷한 의미가 담겨 있다. 그러나 이는 새로운 시간 주기로 들어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벼농사 주기로의 진입을 의미한다. 섹션 2에서 언급했듯이, 출렁 쳇 축제는 새로운 벼농사 주기의 시작을 알린다. 축제가 끝나야 마을 사람들은 신으로부터 농사를 시작해도 좋다는 ‘허락’을 받고 새로운 벼농사 주기를 맞이한다. 최근에는 경제적, 시간적 이유 때문에 설 축제와 출렁 쳇 축제를 함께 열어 모두가 벼농사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설 명절은 음력 열두 달로 이루어진 일년 주기와 벼농사 주기가 새로 시작되는 날이다.

6.2. 완벽한 시간과 사회 질서의 회복

이 세상의 만물은 시간과 함께 소멸된다. 즉, 모든 것은 완벽한 상태에서 점점 멀어지게 되고 시간 주기는 끝이 난다. 새로운 시간 주기가 시작 되기 전에는 만물이 혼란과 무질서에 빠지는 과도기가 존재한다. 새롭게 완벽한 시간 주기를 시작하고 사회 질서를 회복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의식이 거행되어 왔다. 줄다리기도 이러한 목적에 부합되는 의식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의식은 유해교반이라는 힌두교 신화에서 유래된 것이다. 교반은 신과 악마라는 경쟁관계의 두 세력이 서로 합심하여 잃어버린 보물, 즉 불멸의 묘약(amrita)을 찾는 행위를 의미한다. 이와 같은 힌두교 신화와 관련된 신앙과 관습은 캄보디아의 수많은 사회-종교적 맥락에서도 찾아 볼 수 있다.

캄보디아인들은 이 신화와 그 의미를 잘 알고 있다. 12세기 말 캄보디아의 고대 도시 앙코르톰은 이러한 유해교반 신화를 바탕으로 건설되었다. 도시 입구의 양 편에는 악마와 신의 형상을 한 조각들이 나가(naga)를 잡고 서 있다. 이는 분명 유해교반의 신화를 상징하는 것이다. 그런데 캄보디아의 왕 자야바르만 7세(1181-c.1220)가 이 신화를 바탕으로 도시의 입구를 건설한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 신과 악마들이 참족과의 전쟁 중에 잃어버린 ‘영광의 보물’을 되찾기 위해 이 캄보디아의 고대 도시를 휘젓고 있다는 믿음 때문이었을 것이다. 1177~1181년까지 캄보디아는 당시 세력을 확장하던 참족으로부터 공격을 받아 지배를 받게 되었다. 이후 캄보디아를 수복한 자야바르만 7세는 캄보디아의 잃어버린 옛 영광을 회복하고자 노력했다. 사회 질서와 정치를 바로 세우기 위해 의식과 정치제도를 정비했다. 그는 신과 악마가 도시를 휘저어 불멸의 묘약을 찾는다면 도시는 적의 공격으로부터 영원히 안전할 것이라고 믿었다.

이렇듯 되찾기와 재창조라는 내재된 관념은 줄다리기 놀이 의식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놀이는 ‘해(年)라는 시간 주기의 갱신’ 또는 ‘완벽한 질서를 가진 우주의 재창조’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좀 더 의미를 확장하면,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악화되는 ‘사회질서의 재정립’을 상징하기도 한다. 다시 말해 ‘잃어버린 상서로운 시간, 질서 및 번영을 되찾기’ 위해 설 명절에 의식을 거행하는 것이다.

6.3. 기우제의 의미

농업 사회의 번영은 적절한 양의 비가 내려야 이룰 수 있다. 즉, 너무 많지도, 적지도

얇은 양의 비가 내려야 충분한 양의 곡식을 수확할 수 있다. 따라서 공동체는 재창조 행위를 상징하는 놀이를 통해 완벽한 양의 비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내고자 한다. 앞서 살펴 보았듯이 줄다리기가 바로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성적 의미를 지닌 특정 행위들은 기우제의 의미를 지닌 다산과 생산의 행위로 볼 수 있다. 성별로 팀을 나누고 남성과 여성 팀이 서로 겨루는 것도 생산이라는 성적 행위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러한 상징적 의미는 승리를 거둔 팀이 패배한 팀을 쫓아가서 패배한 팀원들의 몸에 엉덩이를 비비는 행위를 통해 한층 더 강조된다. 이러한 행위들은 분명 성적 의미를 함축하고 있다.

줄다리기는 놀이 의식과 경기에서 패한 팀에게 가해지는 벌에는 성적 의미가 다분하다. 이러한 상징적 행위에는 풍작을 이루고 풍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완벽한 양의 비가 내리기를 바라는 염원이 담겨 있다.

7. 결론

캄보디아의 줄다리기는 수 세기에 걸쳐 지속적으로 연행된 전통놀이이다. 뿐만 아니라 사회종교적으로 중요한 상징들이 담겨 있으며, 유해교반의 힌두교 신화는 마을의 농사 주기를 반영한 속신으로 자연스럽게 변모되었다. 줄다리기는 한 때 전국적으로 널리 연행된 민속놀이였으며 캄보디아의 농업 공동체가 치르는 중요한 의식 가운데 하나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이 소중한 무형문화유산을 보호해야 한다고 경고의 목소리가 나올 정도로 줄다리기의 소멸 위기는 심각한 상태이다. 캄보디아 문화예술부와 같은 정부 기관이 후원한 TV 프로그램의 방영을 제외하고 줄다리기를 보호 노력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줄다리기는 최근까지 무형문화유산으로 인정받지 못했지만, 유네스코의 지원⁷을 받은 캄보디아 문화예술부가 줄다리를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하기 위해 국가적 차원의 프로젝트를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춤을 비롯한 현대적인 놀이 문화를 즐기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것은 그만큼 줄다리기의 연행과 보호에 대한 관심이 낮아진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특히 줄다리기의 의미와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낳았다고 볼 수 있다.

각 공동체에서 줄다리와 관련하여 적극적인 활동을 벌이는 기관은 불교 사원 위원회이다. 위원회 구성원들은 매년 관련 행사 조직에 도움을 주고 있다. 위원회는 보통 사원 주변의 마을에 거주하는 노년의 남성 평신도로 이루어져 있다. 그들은 사원의 업무

⁷ 무형문화유산 국가목록 작성을 위한 지역 문화 담당자 교육 프로그램이 유네스코의 지원을 받아 2012 년도에 실시되었다.